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10

충현의 만나

2008

가정예배 읍기 · 마가복음
 누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10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읍기 · 마가복음
 누가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충현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눅 19:10)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⑦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남골시설 건립 및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대답이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죄인들이여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악한 본성뿐인 우리들의 심령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이 악의 뿌리를 뽑아낼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뿐인 우리들에게 한 가닥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은총의 말씀이 들리는

바로 지금.

구주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이 대답이십니다!

2008년 10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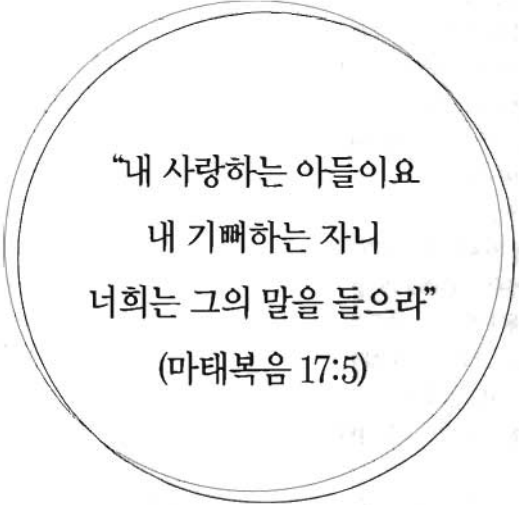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정예배

(매일 성경묵상)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5)

고난을 겪으며 인생의 허망함을 노래하며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탄환합니다. “좋은 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지만 저녁에는 쉴 수 있고 품꾼은 그의 삶을 기다리지만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잠자리에서나마 고통을 잊으려 해도 꿈과 환상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11~16절) 이와 같이 답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친 간섭으로 생각하며 귀찮게 여기고 있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그는 믿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침을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17~21절) 이 탄식의 주어는 하나님이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믿는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며 십자가로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감사해야 합니다.(살후 3:16) 하나님의 은총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순간마다 섭리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옴 7:17~18)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②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엘리바스와 욥의 변론에 빌닷은 답답함을 느껴 입을 엽니다. 빌닷은 전통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지만 결국 엘리바스의 인과응보 사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3~4절)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한 빌닷의 언급은 옳은 말이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라는 측면만 보았을 뿐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이 생각하는 공의는 ‘고난은 죄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의 공의였을 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빌닷은 사람이 세운 전통에 근거한 가치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8절) 전통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성경보다 앞서며 남을 판단하는 족쇄를 만들게 할 때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계명을 교훈삼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9) 전통에 근거한 가치관은 인간의 도덕적 인격과 의만을 내세우는 외식적인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의 기초를 삼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욥 8:3)

기도 제목 ①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에 대한 엘리바스나 빌닷의 지식은 매우 짧고 단편적인데 비해 옴은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옴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그 뜻을 아뢰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2~3절),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4절),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5~10절),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감히 어떤 말도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14~16절) 성경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전 5:2)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사 55:9)

옴은 자신이 비록 이유를 모르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4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음을 옴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이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은 은혜요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 10:19)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옴 9: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매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지금까지 옴의 답변은 자신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충고에 대하여 항변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옴은 친구들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옴은 자신이 처한 고난과 절망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고 있습니다.(1~2절) 우리에게도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상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옴은 자신의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4~7절) 이제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옴의 고난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 안에서 옴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13~17절)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고난 가운데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세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계 14:13)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졌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했고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에게 고난은 복음의 증언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기에는 큰 은혜가 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옴 10:12)

기도 제목 ① 고난 앞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소발은 옴이 말이 많고 교만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한다고 합니다. 옴의 친구들이 각자 옴에게 충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옴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죄라고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옴의 세 친구들의 충고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공의·지혜에 대한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옴에게 어떤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은 율법적인 충고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대할 때 이렇듯 원칙적이고 도덕적인 충고만 한다면 마음에 위안을 주지 못하고 고통을 더욱 부추기며 상처만 남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동기는 “내 믿음이 니보다 낫다.”라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교만함과 자기 의를 내려 놓고, 진정 함께 기도하며 아파하며 위로해주고 사랑하며 믿음의 격려를 나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충고처럼 정죄를 하듯 부적합한 질타일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는 시므이를 향하여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삼하 16:7~14) 하던 다윗의 겸허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아뢰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붙잡을 수 있다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옴 11:7)

기도 제목 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각 교구와 교회학교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친구들의 지적 교만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1~3절), 허물없이 비난을 당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옴은 설명합니다.(4~6절) 또한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7~12절),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13~24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옴은 독선적이고 원칙적인 논리만 설명하는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며 이론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힘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온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옴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과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13절)라고 고백함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옴의 친구들은 위로자요 상담자로 옴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변론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옴을 정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주장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오히려 옴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장황하게 말하기 보다는 듣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낮아지며, 품어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답이신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끌어 주고 기도하며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난에 순종하며,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증언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락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옴 12:13)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광대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친구들의 독선을 질책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강조하는 전반부와(1~12절), 하나님께 대한 욥의 굳은 확신이 언급된 중반부(13~19절),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후반부로(20~28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지식이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임을 거듭 주장합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근본 진리에 대해서는 친구들의 견해에 찬성하였지만, 그들이 이끌어 낸 결론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마치 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변론하듯 친구들에게 항의하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욥이 가진 견고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대로 확신하는데 있었습니다. 또한 욥의 믿음은 친구들과 같이 전통적 교리나 인간의 경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극도의 시련에 처했을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과거와 같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항상 사랑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언제든지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따뜻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며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힘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욥 13:1)

기도 제목 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믿음으로 행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슬픔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옴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옴의 결론은 슬픈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역경을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고백입니다. 옴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통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해방되기 위해 죽음을 동경하지만 동시에 스올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분명치는 않으나 옴은 진노가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음부에 두셨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13~17절)

인간은 에덴동산에서의 범죄 이후 언제나 욕심, 정욕, 시기, 육체를 위한 소욕들로 인해 그 마음이 강박하여 환난 날에 임할 진노를 자신에게 쌓고, 교만하여 교훈을 받지 않으며 악을 즐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그분만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때만 가능합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없어질 육체나 위로받지 못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옴 14:15)

기도 제목 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엘리바스의 비난(1~6절), 짧은 지식과 경험을 탓하는 엘리바스(7~10절), 욥의 의로움에 대한 엘리바스의 책망(11~16절), 악인의 종말에 대한 엘리바스의 설명(17~35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변론에 비해 훨씬 적대적이며 난폭한 어조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욥과 두 번째 변론을 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제는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고 악인의 궁극적인 최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중인이 하늘에 있고, 자신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한층 더 강력하게 선포하며 끝까지 희망과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고자 애쓰는 욥이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신자들이 간혹 품게 되는 의문점을 욥은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놓고 싶어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지며 자기의 태어난 날조차 저주하는 욥이 있기에 우리의 괴로움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욥기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죄의 결과로만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율법을 대표하며, 욥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으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순종만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답인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사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욥 15:8)

기도 제목 ① 하나님보다 자신의 부와 권력과 건강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엘리바스가 위로했던 말들이 욥 자신이 처한 삶의 정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엘리바스의 논지였던 고난과 죄의 상관관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위로는 자신의 의로움만 강조하고 욥 자신을 근심 속에 빠뜨리는 것이었기에, 욥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자신의 무죄함이 밝혀지지 않고 죽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변호해 줄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변론을 통해 고통의 극단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변론과 유사하게 다윗도 시편 109편 24~25절에서 동일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므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 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욥이나 다윗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과 다윗이 이토록 큰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사 54:10)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환난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보다 단대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욥 16:19~20)

기도 제목 ① 고난 중에 처할지라도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토로합니다. 먼저 옴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결코 자신의 호소가 그릇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옴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죽어 가는 자요 조롱받는 자였습니다.(1~2절) 그러나 옴은 친구들에게 주목했던 그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3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옴의 호소 속에는 자신의 결백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옴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이러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선용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8~9절)

결국 옴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의인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었고 주님의 변호를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힘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데 있습니다.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확신하는 것이 쉽지만, 옴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려 혼란을 겪게 되며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기에 흔들리지 맙시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음 증언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복음 증언하는 일에만 초점을 둘 때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옴 17:11)

기도 제목 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 ② 매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빌닷의 두 번째 변론으로 빌닷의 첫 번째 변론과 비교해 볼 때(욥 8장) 별로 개선되지 못한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 변론보다 두 번째 변론에서 더 위협적인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변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욥에게 제시했던 빌닷도 후반부에서는 욥과 그의 가족이 땅에서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위협적인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욥을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3절)라고 힐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욥이 자기를 찾아온 세 친구를 짐승처럼 여긴 일은 없었지만, 그가 친구들을 눈먼 우매자 등으로 매도하자 자기들을 짐승 취급한다고 공박했던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끝없이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세 친구의 변론을 묵상합니다. 친구들의 말이 옳지만 좋은 위로자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기에 한두 장이면 충분하고, 욥의 항변이나 고통에 대한 항변도 한두 장이면 충분한 것을 성경은 왜 비슷한 내용의 변론을 계속 전개하고 있을까요? 세 친구들의 변론이나 욥의 호소에는 자기 부인과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 장에 걸쳐 거듭 변론하지만 자기 의만 주장할 뿐, 자기 부인과 순종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도 강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 놓읍시다. “고난이 닥쳐와 내가 이렇게 바닷까지 내려가 깨어졌노라.” 할 때 조차도 자기 부인이 되었는지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욥 18:5)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처럼 보신다는 불안한 느낌만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8~11절)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을 풍성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고후 1:3~4)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항상 그런 위로를 느끼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위로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어도 밝은 해가 그 뒤에 버티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25~26절) 혹시 이대로 죽을지라도 썩을 몸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온전히 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욥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욥의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며,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자신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복음의 증언자로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든지 고난 당한 우리의 육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포기되지 않고 마치지며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볼 날을 소망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욥 19:25)

기도 제목 ①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친구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 가운데는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옅의 친구 ‘소반’은 말합니다. “악인의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5절) 혹시 악인이 만사가 형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랑은 잠시뿐이라는 말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슬픔과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멸망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잠시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죄의 특성이요 악인의 분깃입니다.(29절) 즐거움과 행복과 편안함을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의 세력을 대할 때마다 죄의 낙은 잠시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4~26)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많은 돈과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삶을 살면, 혹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막 10:30)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옅 20:5)

기도 제목 ① 죄악의 낙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만일 욥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처럼 큰 재앙을 당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런 판단에 욥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7절)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재앙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당연히 모든 악인들은 불행과 재앙을 피할 수 없을 텐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들은 오히려 평생 사치하고 호화롭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과 재앙이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임하는 불행이나 재앙도 있지만, 모든 불행이나 재앙이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인 것만은 아닙니다.

악인의 후손이 오히려 굳게 서는(7~15절)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이 말씀에 침묵합니다. 성경이 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변론하지 맙시다. 그러나 이러한 허무를 묵도함에 있어서 비관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원의 세계를 간직하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리켜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할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 9:2~3)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복음의 증언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며 좁은 길을 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라”(욥 21:31)

기도 제목 ①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얻고 출세를 하여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참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21절)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롬 5:10)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화목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많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정결한 복음의 증언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총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옴 22:21)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전도위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영혼구원의 열심을 주시고 은총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인내와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려는 욥의 모습입니다. 반복되는 친구들과 논쟁을 지양하고, 계속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보다는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12절) 말씀을 순종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욥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세상 일과 하루의 일과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 규칙적인 습관이 되면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 “나와 이야기하자.”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소중한 부르심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3절)하는 욥의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원했던 욥과 같이 성도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으며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해 주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에 대하여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며,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10,14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욥 23:12)

기도 제목 ①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한 피택장로 주 제발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악인들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24절) 악인들은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잘 되어도 어느 순간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황제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으며 교만하게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에 그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악인의 결말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설령 악인이 죽는 순간까지 건강하고 부유하며 평강하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그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풀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홍왕할 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시 92:7)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경건한 신자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도 안 됩니다.(시 73편 참고)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뿐이고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 4:17) 그러므로 복음의 길을 걸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 마십시오. 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복음의 좁은 길을 걷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두 세계를 사는 자들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신 길이요 참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욥 24:22)

기도 제목 ①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발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미천함에 관하여 상투적인 주제를 내세워 욕을 공격합니다. 욕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인생은 근본적으로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질서 있게 통치하시며 천군천사를 호령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생각하노라면 우리 자신은 벌레요 구더기(6절)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다녀온 많은 성도들이 무의식 중에 “자기가 했노라.”고 자랑을 합니다. 선교 중에는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다녀와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채 자기 자랑으로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말하곤 합니다. 또한 은연 중에 “우리 가족이 어떠하다.”는 자랑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맙시다. “나는 죄인입니다.”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고백이 되기愿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요 25:4)

기도 제목 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소서. ② 수요성경공부, 교사 양성부 및 찬양대원 양성부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이 십자가의 정병들로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몇 가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주장하시고(5~6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배열하시며(7절), 구름과 비를 주장하시고(8~9절), 바다의 경계선과 빛과 어두움의 경계선도 정하셨다는(10~13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언급한 후에 욥은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14절)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능히 측량하랴?”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연에 행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감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말하면서 동일한 감탄을 터뜨립니다. “깊도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우리에게 욥과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감탄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감탄하며 탄복하는지요?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욥 26:14)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마음 가운데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훈련에 축원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전능자를 기뻐함입니다. 악인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10절)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악인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를 증언해야 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4절)는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입술과 혀로 십자가만이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선교는 쉴 수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우리의 심령을 추스르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에 십자가를 넣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기뻐합니다. 차를 타고 가거나, 운전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집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언할 때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은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다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욥 27:10)

기도 제목 ①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두며,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훈련을 기도로 준비하는 총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때마침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가서 보니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14절)고 저주를 하셨고 이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저주는 바로 이루어졌습니다.(20~21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성전 정화사건(15~18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더불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실수입니다. 즉,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유대교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멀리 떠나 주님을 믿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며 곧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생명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닌지 살펴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막 11:14)

기도 제목 ①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게 하소서. ② 장로·안수집사·권사로 임직되는 일꾼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완악한 종교지도자들에게 하신 이 비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2~7절) 그의 아들까지 죽인다는 것을 암시하며(8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 사 회개 기회를 마련하셨지만 끝까지 완악한 태도로 입하였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9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10절, 시 118:22)라고 말씀하시며 버린 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머릿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험은 계속 되었지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34절)라고 칭찬받은 서기관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탐욕과 위선에 관한 말씀(38~40절)과 대조적으로 두 렵돈을 넣은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가?”에 대한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과부가 넣은 두 렵돈은 가난한 과부에게는 전부입니다. 넣고 난 후 남은 것은 전혀 없는 전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30~31절) 하시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원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결정과 믿음의 실천을 원하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막 12:44)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② 제3차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에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종말의 징조와 그대에 있을 핍박 그리고 성도들은 이를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에는 신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계하십니다. 또한 그 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인데 바로 이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신자들을 공회에 넘겨주며 회당에서 매질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자들이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저들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그들을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13절)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상상도 못할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막 13:13)

기도 제목 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 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의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수난 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만찬(12~26절),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예고(27~31절), 겟세마네 동산 기도(32~42절), 체포당하심(43~52절), 대제사장의 심문(53~65절),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66~72절) 등과 같은 급박한 사건들로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체포당하심 사건은 세상 죄를 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시되 그 입을 열지 않으신(61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 놓겠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6절)의 순종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피에 있어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갈보리산 위에서 속죄함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분명히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쓰면 베드로와 같이 실패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부인을 간구할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은총으로 자기 부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막 14:71)

기도 제목 ① 철저히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② 봉사위원회의 모든 섬김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 (충독의 관저)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자색은 왕의 의복의 색깔이요 가시 면류관은 왕관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왕처럼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네가 무슨 왕이냐?' 라고 희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예를 표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희롱하였습니다.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톡톡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까지 합니다. 이렇게 희롱을 한 후에는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원래 입으셨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고 낮아지셔서 말구유에 누우시고 인간들에게 고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인간들에게 이 고초를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향해 희롱하며 갈대로 머리를 치는 로마 군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막 15:20)

기도 제목 ① 모든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날마다 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는 학습 및 세례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산보네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인식 후 첫날 해돋을 무렵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향품은 부패한 시신의 악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바르는 것으로서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았고 주로 귀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아주 귀하신 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는 이 세 여인이 정작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 가는 길에, 누가 자신들을 위하여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 줄지를 의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며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8~20)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시며 영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막 16:6)

기도 제목 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주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여”(28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31절) ‘예수’란 말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마리아가 임신하여 낳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시골 처녀인 마리아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정말 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5)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라는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 좁은 길, 복음 전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눅 1:77)

기도 제목 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목 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창 3:15)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미 5:2)고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 땅에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으나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구체화된 것을 보는 것이며 이것은 은총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바로 그의 위로의 근원됨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은 맨 먼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 받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경건된 삶을 준비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눅 2:30)

기도 제목 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의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활동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였으며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촉구하며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특징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처하며 권위 의식에 젖은 채 위선에만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외침입니다. 죄 사함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요한의 세례도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눅 3:8)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복음의 증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고 전파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고 믿으라”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은총의 대속을 경험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증언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한걸음 한걸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 증언하는 길을 걸읍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눅 3:4)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 받은 모든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세 번에 걸친 사탄의 시험은 “고난받는 여호와와 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메시아적 임무를 포기하도록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하여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제시한 방법을 통하여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택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히 5:6~8)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으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는가를 보여 줍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18~19절) 이는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적 사역을 증언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사 61:1~2) 따라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고후 6:2)임을 깨달아 자신의 구원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내 형제, 이웃에게도 전하여 저들도 구원을 얻게끔 힘써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43절)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 증언하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눅 4:43)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

10월 구역 교재 초점

예수님이
대답이시다

예수님이 대답이시다

세상의 힘이 행복한 삶을 보증해 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께 속한 것들만 영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구주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은총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스 8:23)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이십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1003	사 55:6~9	여호와를 찾으라	구주 예수님을 찾으라
1010	시 55: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구주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
1017	고후 6:2	지금은	구주 예수님께 지금 돌아오라
1024	스 8:21~23	에스라의 선포	구주 예수님께 간구하라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여호와를 찾으라

| 초 점 |

구주 예수님을 찾으라

| 찬 송 |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 본 문 | 이사야 55:6~9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에덴동산에서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 3:9~10

눅 19:10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인간 역시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안락한 삶을 위해 부해지길 원합니다.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허탈감을 메우기 위해 스릴을 즐깁니다. 공허한 삶을 채워줄 누군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 현재 내가 갈급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사 55:6 /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적인 관념과 물질을 좇는 것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찾으십니다.

빌 2:8 / □□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에 죽으심이라

여호와를 찾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귀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사 53:5~6

고전 15:3~4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죄인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주저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자

죄인들은 썩어질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사 55:7 / □□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의 방법과 합리적인 기술로 어떤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집착한다 해도 결국은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 길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며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 길은 많은 행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나 종국은 배신과 사기입니다. 그 길이 제공하는 꿈들은 악몽으로 바뀔 것입니다.

눅 13:24

골 2:8

만약 여러분이 절을 수조차 없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업고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며 보호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 하신다

구세주는 그분을 찾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사 55:8~9 / 이는 내 □□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추악한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운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풍성합니다.

※ 나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렘 20:13 / 여호와께 □□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하라 가난한 자의 □□을 행악자의 손에서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할지라도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삼하 7:8~9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누리
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마 11:28

갈 2:20

진리와 진정한 사랑, 행복, 삶의 목적을 찾는다면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구주 예수님께 삶의 전부를 의탁하게 하소서
2.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는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2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 초점 |

구주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라

| 찬송 |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 본문 | 시편 55: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
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문제나 상황을 놓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심하지 말고 그것들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무거운 짐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 현재 나를 힘들게 하거나 스트레스인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첩첩이 쌓인 짐 속에서 짓눌려왔습니다.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정치적, 종교적인 짐 외에도 수많은 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는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권고하십니다.

마 11:28~30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_____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_____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를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할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의 집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그 집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그 짐들을 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그 짐들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시 55:22 / 네 을 여호와께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짐들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짐을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행 2:21

히 4:15~16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벧전 5:6~7)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 예수님께 맡길 나의 짐들을 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맡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짐을 다시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고후 5:21 / 하나님이 _____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_____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 짐을 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짐을 지시고 돌아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붙드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그 대신 평안을 주십니다.

롬 5:6 / 우리가 _____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며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 현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이 있습니까? 나누어 보십시오.

딤후 1:7

담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짐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맡긴다면 여러분은 곧바로 평안과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아직도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짐들을 대신 지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후 13:4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예수님 좌우편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던 강도들의 최후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보십시오(눅 23장 참조)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심과 공로가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짐들을 내려 놓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제해결의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 마가복음 5:34, 10:52 말씀과 베드로전서 1:9 말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를 두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골 2:15

왜 염려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바로 지금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사 10:27

고후 12:9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고, 미래를 보증해 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구주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보혈로 충만해 집니다. 구주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구주 예수님께 내 모든 짐들을 맡기게 하소서
2.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3과 지금은

| 초 점 |

구주 예수님께 지금 돌아오라

| 찬 송 |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찬송가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 본 문 | 고린도후서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
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태중에 잉태된 순간부터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단지 몇 분 혹은 몇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 1:2~4

어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벧전 1:24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 위임독서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후 6:2 /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_____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이로다

사 49:8

진실로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좇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에 얽매어 두려움과 염려가 자신들을 지배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사회의 관심과 성경의 관심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엡 2:8~9) 지금은 준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잘 해내기 위해 애쓰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영원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요일 5:12

계 3:20

지금은 행복하는 날이다

지금은 여러분이 행복하는 날입니다.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고후 6:2 /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_____
_____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의 어리석은 완고함이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파멸로 이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히 3:7~8

히 3:13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완고함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롬 12:1~2

지금은 다른 영혼을 구원할 날이다

지금은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딤후 4:5 /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을 받으며 □□□의 일을 하며 네 □□를 다하라

구원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백만장자나 혹은 억만장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현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선교사역입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물자를 선교에 투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이 점점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히 11:16

엡 5:8

하나님은 지금 모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이 오늘이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고전 15:51~52

살전 5:6

지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쳐있거나, 질병 또는 고된 일로 쇠약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구원과 절대 행복에 대해 말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소망을 품고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날입니다. 구주 예수님께 지금 돌아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변명과 핑계의 불신앙을 버리게 하소서
2. 지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구주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지체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4과 에스라의 선포

| 초 점 |

구주 예수님께 간구하라

| 찬 송 |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본 문 | 에스라 8:21~23

²¹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²²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²³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바사 왕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에스라와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아하와 강 가에 이르렀을 때 예기치 않은 근심거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였지만 레위인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했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영적 봉사자들이 없었습니다.

스 8:15

스 8:18~20

모든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보화를 신고 장거리를 여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위험이 도사리는 두려운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대적들과 질병, 인생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놓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화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빼앗아 갑니다.

※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디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 에스라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스 8:21

※ 시편 121:1~4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해 보십시오.

에스라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중한 모든 것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기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 27:8

사 26:9

단 9:3~4

눅 6:12

완전한 행복을 선포하다

에스라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행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스 8:22 /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_____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_____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_____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
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에스라는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였습니다.

※ 다음의 질문에 대해 보십시오.

-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잠잠히 바라보니까?
-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시 62:5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문제와 그들이 처한 위험, 그들의 영혼까지 모두 내어맡겼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스 8:23 /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하며 우리 하나님께 □□하였더니 그의 □□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심령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대답이었습니다.

사 58:9 /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 □□ 하리라

※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위협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움켜쥐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암 5:4

마 7:7

지금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간구하십시오.

마 1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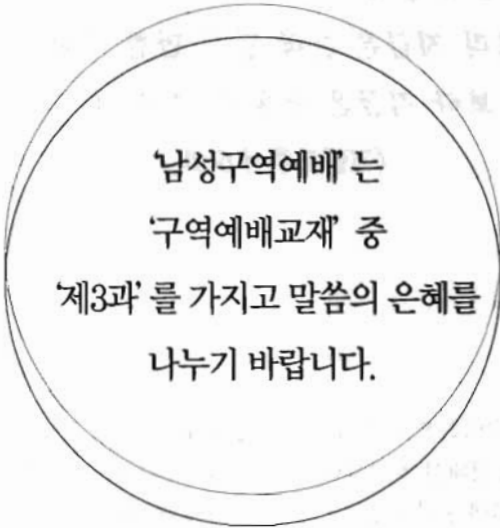
시 27:8

종교개혁주일은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심령을 개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속적인 방법으로 어려움과 위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죄는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그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여러분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구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주소서
2. 주님께 절대항복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2)

오늘의 본문말씀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중에 잉태된 순간부터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단지 몇 분 혹은 몇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뒤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자신의 과거에 있고 그것에 대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은 부모들에게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이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

지 아니면 지독한 말썽장이었는지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총의 시간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이사야 시대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사 49:8)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진실로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좇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에 얽매어 두려움과 염려가 자신들을 지배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가 아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며 늘 화가 나 있고 세상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하루만 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동할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조금만 있다가’ 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나가버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구원보다 더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2:8~9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도덕적이거나 선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잘 해내기 위해 애쓰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영원한 삶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혹시 여러분은 골치 아픈 문제들, 질병, 직장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로 인해 모든 것을 팽개치고 쉬기를 원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믿음을 간직하고 혼신을 다해 그것을 꼭 붙드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지금 당장 문을 여십시오!

지금은 행복하는 날이다

지금은 여러분이 행복하는 날입니다.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잘 났다든지 못났다든지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자신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생각이라면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은 완고함이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단지 몇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성령의 역사를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히 3:7~8)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향했고 결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며 울부짖었고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격려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히 3:13)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2:1~2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어

떤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지금은 다른 영혼을 구원할 날이다

지금은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구원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백만장자나 혹은 억만장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돈 버는 일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존심만 내세우게 됩니다. 전도를 통해 얻는 유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정말로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보화도 복음전도를 통해 얻어진 영혼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그들이 정말로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현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선교사역입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물자를 선교에 투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고 그것을 알리려고 주일예배에 참석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하루 속히 바뀌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이 점점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니라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이 오늘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51~52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쳐있거나, 질병 또는 고된 일로 쇠약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구원과 절대 행복에 대해 말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소망을 품고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8년 10월호
Copyright© 2008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